

미디어교육!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정연실 (서울 미양초등학교 교사) / 2003. 6. 3 -

우리 학교에는 '미디어 부'라는 클럽 활동 부서가 있습니다. 미디어 부는 미디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미디어교육을 위한 특활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미디어교육'이란 말을 한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교육이란 우리 주변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러한 미디어를 제대로 읽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는 요즘,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문화 속에 자리 잡은 미디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등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외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미디어교육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저희 미디어수업 시간에는 여러 가지를 공부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개념, 특징 등을 이해하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이용습관을 점검해 봅니다. 다양한 매체에 대한 수용자로서의 태도, 매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기능도 익히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제작자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뉴미디어 시대의 생산자로서의 자질을 기르려고 노력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미디어교육은 참으로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읽고 쓰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의 미디어 환경은 쉽게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하루에 5시간 이상 보던 아이가 3시간 이하의 선택적 시청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가정이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면 아이의 결심은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중요시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기초가 되는 미디어 이용습관의 점검과 계획성 있는 미디어 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나 교회에서 실시하는 미디어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이 실제로 교실이나 교회보다는 가정과 일상에서 더 많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종영된 시청률 1위의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9세 이상 시청이 가능한 드라마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대부분이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동안 옹기종기 모여 앉아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재연이라도 하듯이 온갖 종류의 게임을 도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19세 이상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를 너희들이 왜 봤니?'라고 묻는 것은 우스운 질문입니다. 부모님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부모님과 함께 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왜 보느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청교육이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어교육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생각하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교육'이라는 것이 아직도 연령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것지요. 그렇지만 미디어교육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미디어교육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교육에 앞서 부모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특정 매체가 여러분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진 않습니까? 사고와 가치를 흔들고 있진 않습니까? 미디어를,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 시대 문화들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혹시 미디어교육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미디어교육은 학교나 교회, 시민단체에서 일부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들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것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텔레비전이 인터넷이, 만화와 잡지가, 즐겨 듣는 음악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녁엔 가족과 함께 미디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셨으면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미디어교육의 시작입니다. 미디어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